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7730.82	코스닥	951.63
	(-366.11)		(-16.18)
금리 (연고채 3년)	3.881	환율 (원/달러)	1528.05
	(+0.025)		(+15.95)



GNI 뛰었는데... 체감은 냉랭 '3高의 늪'

(국민총소득)

한은, GDP 전년비 3.8% ↑ 실질 GNP 13.2% 늘었지만 3%대 물가상승, 고금리 등 국민들 체감경기 괴리 커져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 숫자와 국민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국민소득 지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고환율과 3%대 물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쳐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더 크게 뛰었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9.2%,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명목GNI도 전기 대비 11.0%,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다.

GDP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낸다. 1분기에는 생산 증가뿐 아니라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득 지표가 성장률보다 더 크게 개선됐다.



'투표용지 부족' 현장검증 물증확보 실패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 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투표소는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 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투표소는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뉴시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소득

이번 지표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분기 성장률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 기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호조에 힘입어 개선됐다.

국민소득 증가폭이 성장률보다

더 컸던 것도 반도체 영향이 작지 않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고, 이는 실질 구매력 증가로 이어졌다.

명목 성장률도 가팔랐다. 1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고, GDP 디플레이터(명목금액에서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해 실질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물가지수)는 12.9% 상승했다. 다만 이는 내수 물가가 급등했

수출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1분기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상승한 반면 수출 디플레이터는 23.5% 급등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25년 1인당 GNI는 원화 기준 5257만 원, 달러 기준 3만 693달러로 집계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4.6% 늘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명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기업들 급전 찾는다... 단기차입금 216% 증가

올해 기업 102곳 단기차입 자금조달 규모 19.1조 달해 중소·중견사 유동성 리스크

기업들의 외부 자금 조달 유형 중 단기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 의존도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자 국내 기업들이 고금리의 급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메트로경제가 금융감독원에 '단기차입금증가결정' 공시를 낸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2개 기업이 단기차입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규모는 19조1040억원(비상장 계열사 및 금융사 포함) 규모다. 이는 지

난해 같은 기간 6조335억원(70개)보다 216.63% 늘어난 것이다. 기업수는 45.71% 증가했다. 기업수로는 지난해 전체 165개사의 62%에 달한다.

이 같은 단기화는 기업 자금 조달시장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회사채 발행실적은 22조2021억원으로 13.5%포인트 늘었으나, 이 중 일반회사채는 4조1740억원으로 6070억원(12.7%) 줄었다. 기업들은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 창구를 옮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6000억원) 대비 약 43% 증가했다. 4월 기업어음(CP) 및 단기 사채 발행금액은 22조6038억원으로 전월 대비 26조1300억원

(13.0%) 증가했다.

회사 신용도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발행하는 회사채나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비해 단기차입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진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압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장기 저리 대출이 유리한데도 당장 자금 조달이 어려워 단기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협력이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율이 전년 38.5%에서 지난해 3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 적자를 본 기업 비율도 전년 26.2%에서 지난해 28.2%로 확대됐다. 이자보상비율이 낮을수록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100%가 안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한계 기업'으로 분류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무보증 AA-, 3년)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499%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중 최고치인 3.599%보다 0.90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6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kova@



metro

"더 나은 대한민국 보여드릴 것"

李 대통령, 8박10일 유럽 순방 순방 첫날 벨기에 동포 간담회

유럽 3개국 순방 첫 행선지인 벨기에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과 만나면서 8박10일 간의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동포들에게 "여러분이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날인 이날 브뤼셀의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벨기에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은 시간 극적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뀌었다"며 "본국의 위상이나 세계에서 인정받은 신뢰도에 따라서 대접이 좀 다르지 않으나, 아마 2~3년 사이에 극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다. 국가 위상을 돌리는 일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전모 밝혀 투명하게 공개" /사진 뉴시스
- ▲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국민에게 나누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 필요"

- ▲김 총리, 최태원 '해외 반도체 공장' 검토에 "한국에서 되도록 노력할 것"
- ▲방첩사 49년만에 해체...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내달말 창설

- ▲윤석열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 ▲검찰,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무상비밀누설' 부승찬 의원 혐의없음 처분